

제3회 함께서울 정기포럼

“서울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

2015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함께서울포럼 소개

제3회 함께서울 정기포럼

■ 목적

- <함께서울포럼> 제3회 정기포럼 개최
- “서울 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주제로 분과별 논의 및 정책 제시

■ 진행 순서

	소개 및 모두발언	사회 :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10'	인사말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15'	모두발언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함께서울포럼 대표)
15'	함께서울포럼 소개	김인희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주제 및 분야 발표	
20'	주제 발표 : 시민의 시간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분야별 발표	
	서울의 시간은 누구편인가? 팬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제일자리 분과위원)
60'	예술인에게 ‘시간’은 무엇인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관광 분과위원장)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 갈등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여성 분과위원장)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돌려줄 수 있을까?	안승문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자문관 (교육청소년 분과위원장)
10'	휴식	
50'	종합토론	사회 :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경제일자리 분과위원장)

[주제발표]

시민의 시간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변 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함께서울포럼 정책박람회



서울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 : 시민의 시간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2015. 9. 11

변 미 리
miree21@si.re.kr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Life Time

서울시민은 하루는 ?

서울시민 하루의 시간 구성

필수생활시간 9:20

수면 7:54

식사 1:26

의무생활시간 7:57

일(수입노동) 3:09

가사노동 1:27

학습 1:07

이동 1:51

돌보기 0:23

여가생활시간 4:23

여가·교제 4:21

참여봉사 0:02

분석 데이터 원자료: 2014년 생활시간조사
(단위, 시간:분)



하루 7시간 54분을 잠자고,
식사하느라 1시간 26분 사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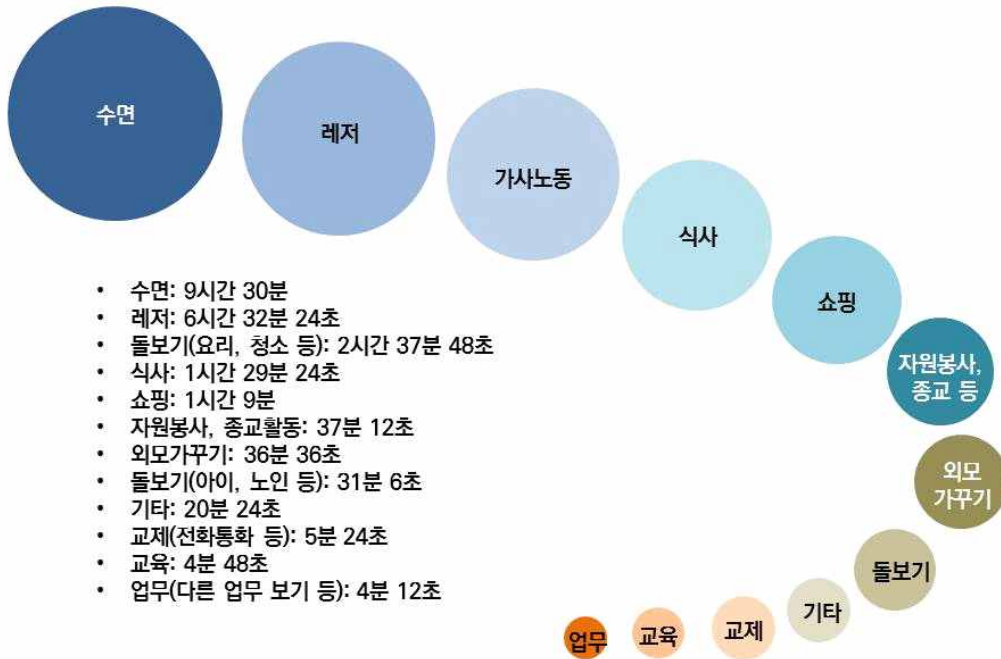
돈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3시간 9분,
가사/가정관리에는 1시간 27분,
학습/학교에 1시간 7분,
이동하느라 1시간 51분을 사용
가족/가구원 돌보는데 보내는 시간은 23분

여가시간은 하루 4시간21분을 쓰고,
참여봉사는 단 2분만 할애

*()는 행위자 평균시간 2

Lif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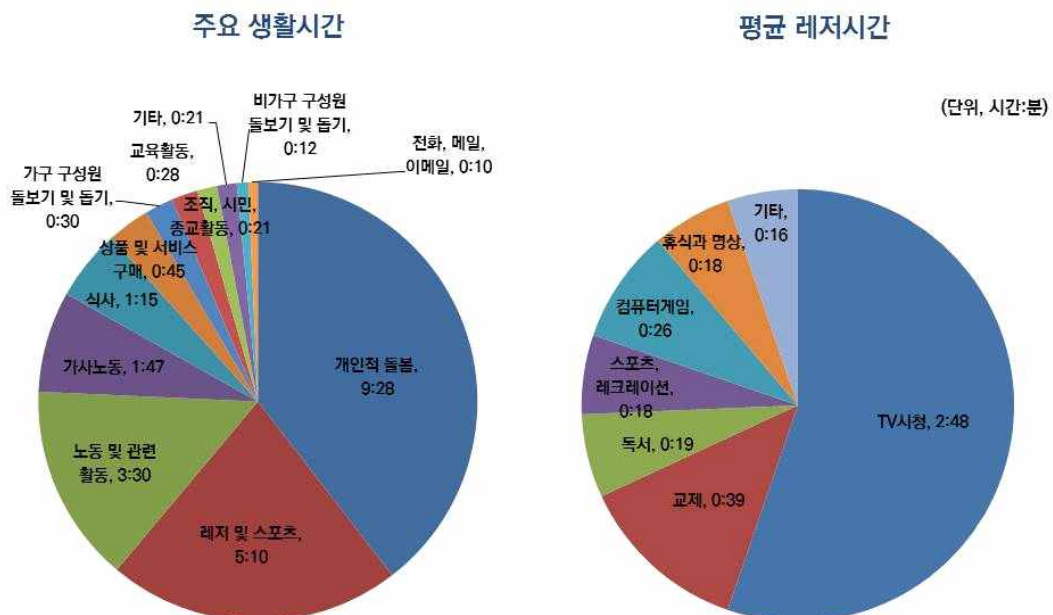
미국생활시간 구조



3

Life Time

미국생활시간 구조



4

Life Time

서울 시민

인구사회경제적
시간 사용,

어떻게 다른가?

5

Life Time

서울시민 男女의 시간은 ?

서울시민 남자와 여자는 잠자거나 밥 먹는 시간은 비슷하나,
남자는 여자보다 1시간35분 더 일하고,
여자는 가정관리에 남자보다 1시간 51분 더 많이 할애하고
가족 돌보는 시간도 여자가 27분 더 많고, 여가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32분 적어

남성

(단위, 시간:분)



여성



*()는 행위자 평균시간

6

Life Time

서울시민 世代의 시간은 ?

40대가 가장 적게 잠자고(7시간 38분), 가장 많이 일하고(4시간 22분),

20대의 식사시간이 가장 짧고,

30대는 아이 돌보는 등 가족 돌보는 시간이 가장 많고(1시간 9분),

50대는 일하는 시간은 3,40대보다 적어

60대 이상은 여가시간이 가장 많고, 식사 시간도 가장 길어

(단위, 시간:분)

*()는 행위자 평균시간

세대	수면	학습	여가-교제	이동	식사	일	가사노동	돌보기	참여봉사	여가-교제
10대	8:19	6:07 (7:06)	4:01 (6:42)	1:32 (1:37)	1:22	0:20 (5:18)	0:14 (0:43)	0:01 (0:35)	0:00	3:25
20대	8:17	여가-교제 3:51 (3:58)	일 3:16 (6:54)	이동 2:09 (2:16)	학습 2:03 (5:41)	식사 1:19	가사노동 0:43 (1:13)	돌보기 0:07 (3:23)	참여봉사 0:00	5:04
30대	7:49	일 4:14 (6:57)	여가-교제 3:18 (3:23)	이동 2:06 (2:14)	가사노동 1:29 (2:16)	식사 1:24	돌보기 1:09 (3:23)	학습 0:16 (0:01)	참여봉사 0:01	1:55
40대	7:39	일 4:22 (7:02)	여가-교제 3:43 (3:47)	이동 2:02 (2:11)	가사노동 1:50 (2:36)	식사 1:29	돌보기 0:25 (1:12)	학습 0:08 (2:57)	참여봉사 0:01	1:48
50대	7:41	여가-교제 4:30 (4:33)	일 3:55 (6:42)	가사노동 1:55 (2:34)	이동 1:48 (1:57)	식사 1:30	돌보기 0:13 (1:24)	학습 0:04 (2:36)	참여봉사 0:02	2:35
60대 이상	8:00	여가-교제 6:27 (6:29)	가사노동 1:59 (2:30)	일 1:47 (6:08)	식사 1:32	이동 1:25 (1:43)	돌보기 0:11 (1:34)	학습 0:02 (1:31)	참여봉사 0:02	1:57

7

Life Time

서울시민 소득계층별 시간은 ?

	수면	식사	일	학습	가사노동	돌보기	이동	참여봉사	여가-교제
10분위	7:34	1:36	5:13 (7:10)	0:02 (1:14)	0:40 (1:21)	0:17 (1:13)	2:22 (2:30)	0:01 (1:43)	3:59 (4:03)
9분위	7:40	1:30 (1:31)	5:11 (7:12)	0:08 (2:18)	0:56 (1:40)	0:23 (1:35)	2:18 (2:26)	0:00 (0:42)	3:36 (3:39)
6~8분위	7:45 (7:46)	1:24	5:21 (7:10)	0:08 (2:46)	0:58 (1:39)	0:17 (1:30)	2:12 (2:18)	0:00 (1:40)	3:33 (3:38)
3~5분위	7:55	1:21 (1:22)	4:50 (7:04)	0:10 (2:47)	1:17 (1:51)	0:14 (1:25)	1:53 (2:00)	0:01 (2:12)	3:52 (3:56)
2분위	8:00	1:23	2:34 (5:34)	0:37 (4:26)	1:59 (2:25)	0:17 (1:36)	1:41 (1:54)	0:01 (1:45)	5:01 (5:05)
1분위	8:05	1:28	0:22 (4:12)	2:44 (6:40)	1:57 (2:48)	0:34 (2:24)	1:29 (1:42)	0:04 (3:01)	5:03 (5:05)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8

Life Time

서울시민 소득계층별 시간은 ?

고소득층은 적게 자고,
중산층은 밥먹는 시간이 짧고
저소득층은 이동시간이 길고 학습시간이
길게 나타나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9

Life Time

서울시민 직업별 시간은 ?

블루칼라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수면시간이
가장 짧고, 일하는 시간은 가장 많으며,
식사시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10

Life Time

서울시민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지위에 따른 시간은 ?

(단위, 시간:분)

상용종사자	수면 7:40 (7:41)	일 5:47 (7:42)	여가-교제 3:15 (3:20)	이동 2:14 (2:19)	식사 1:26	가사노동 0:53 (1:33)	돌보기 0:18 (1:23)	학습 0:06 (2:17)	참여 0:00 (1:47)
임시근로자	수면 7:47	일 4:29 (5:59)	여가-교제 3:46 (3:53)	이동 2:10 (2:14)	가사노동 1:24 (1:56)	식사 1:21 (1:22)	학습 0:29 (3:34)	돌보기 0:11 (1:11)	참여 0:01 (2:34)
일용근로자	수면 7:49	일 4:12 (5:56)	여가-교제 3:58 (4:01)	이동 1:53 (1:59)	가사노동 1:33 (2:14)	식사 1:28 (1:23)	학습 0:35 (4:41)	돌보기 0:12 (1:21)	참여 0:02 (1:3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면 7:43	일 5:53 (7:01)	여가-교제 3:23 (3:24)	이동 2:22 (2:24)	식사 1:30	가사노동 0:38 (1:21)	돌보기 0:13 (1:21)	학습 0:01 (1:07)	참여 0:01 (4: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면 7:49	일 5:04 (6:28)	여가-교제 3:50 (3:52)	이동 1:57 (2:08)	식사 1:27	가사노동 1:07 (1:45)	돌보기 0:12 (1:09)	학습 0:18 (4:07)	참여 0:01 (1:21)
무급가족종사자	수면 7:32	일 5:19 (6:24)	여가-교제 3:21 (3:29)	가사노동 2:06 (1:23)	식사 1:27	이동 1:17 (1:23)	돌보기 0:28 (1:21)	학습 0:12 (3:35)	참여 0:00 (1:30)

*()는 행위자 평균시간

11

Life Time

서울 시민
결혼과 젠더에 따른
시간 사용,
어떻게 다른가?

12

Life Time

혼인상태별 시간사용 구성 특성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13

Life Time

남녀의 혼인상태별 시간 사용은 ?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14

Life Time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차이 별 시간 사용 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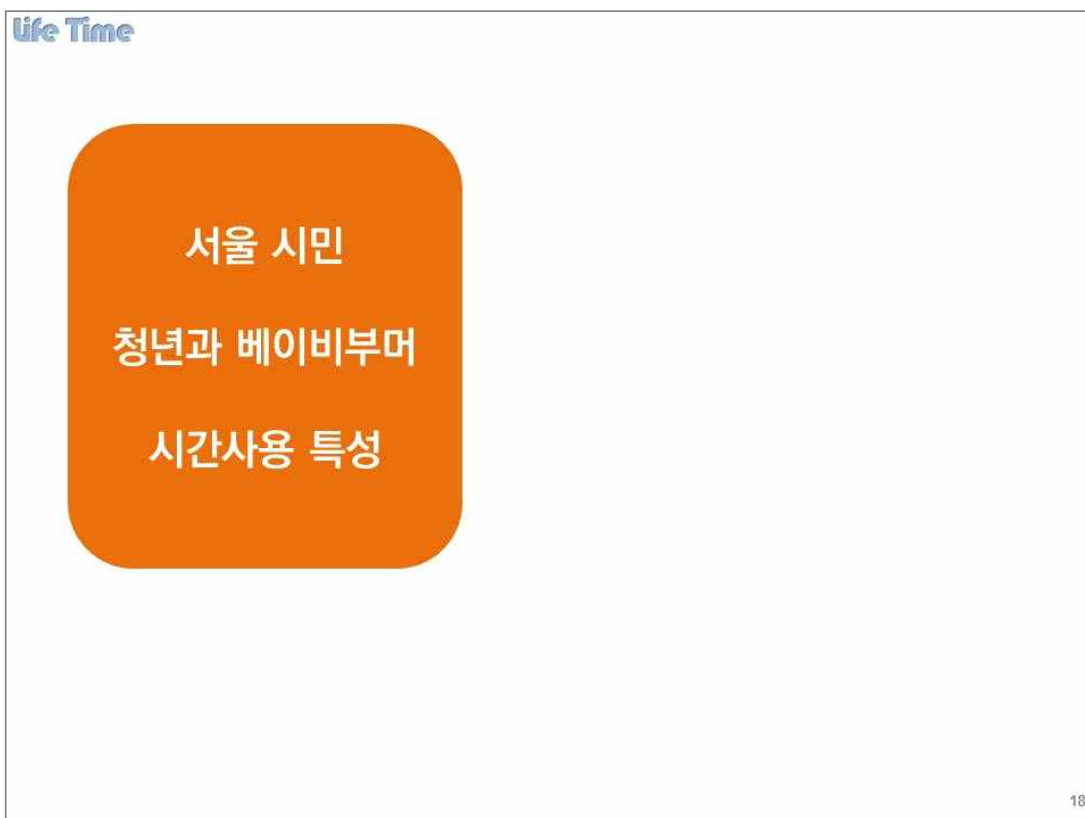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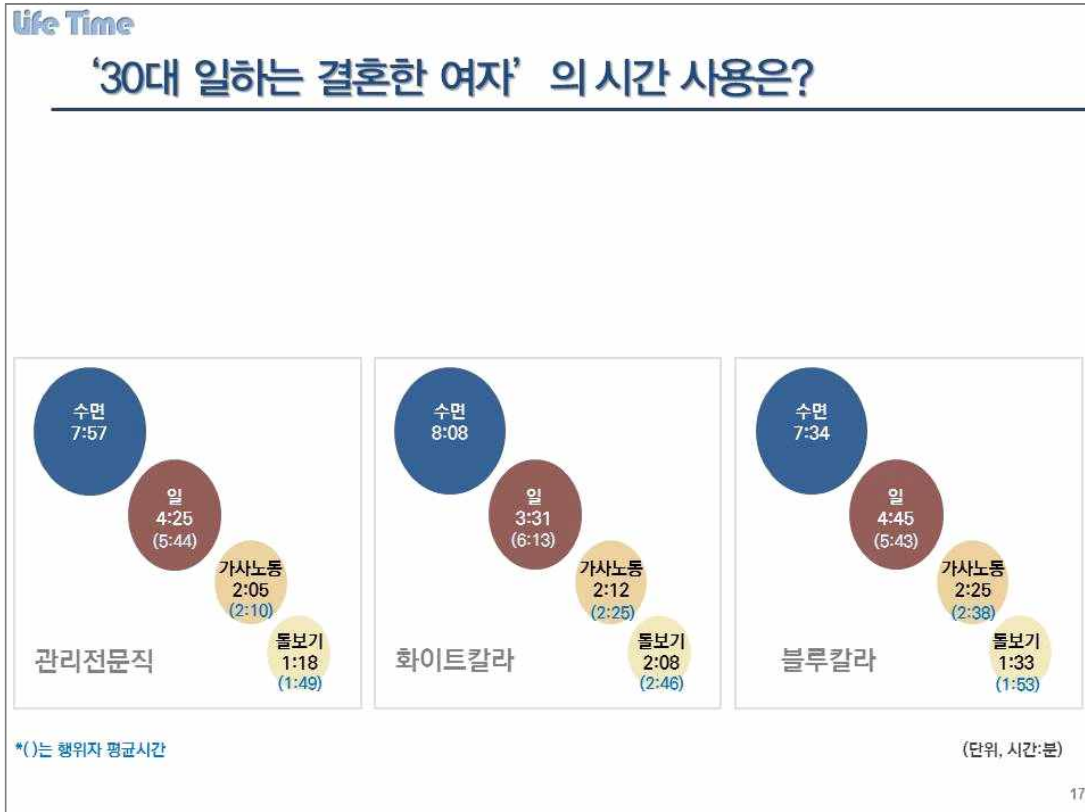
15

Life Time

일하는 여자들의 세대별 시간 사용



16



Life Time

청년들(20~39세)의 고용 지위에 따른 시간 사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



상용종사자



*()는 행위자 평균시간

19

Life Time

일하지 않는 청년들(25~34세)의 시간 사용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20

Life Time

50대 결혼한 일하는 남성들의 시간 사용

(단위, 시간:분)



*()는 행위자 평균시간

21

Life Time

서울 시민

시간에 대한
주관적 태도와
시간 사용,

어떻게 다른가?

22

Life Time

‘난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자기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길고, 밥먹는 시간은 짧고,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이 길어

시간부족 집단



시간여유 집단



*()는 행위자 평균시간

23

Life Time

‘난 오늘 하루가 피곤하다’ 고 느끼는 시민들의 시간은?

하루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밥 먹는 시간도 짧으며,
일하는 시간은 길고, 이동하는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

하루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루가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는 행위자 평균시간

24

Life Time

‘난 나의 삶에 만족한다’ 는 시민들의 시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수면, 상대적으로 짧은 일,
가정 돌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25

Life Time

‘난 오늘 피곤하지 않은 직업인’ 의 시간 사용은?

일하면서도 하루의 삶이 피곤하지 않게 느끼는 시민들은,
7시간 52분의 수면과 5시간 8분 일하고, 2시간 11분 이동하고,
1시간 31분 동안을 식사하는데 보낸다.

피곤한 하루의 풀타임 직업인의 시간 구성



피곤하지 않은 풀타임 직업인의 시간 구성



*()는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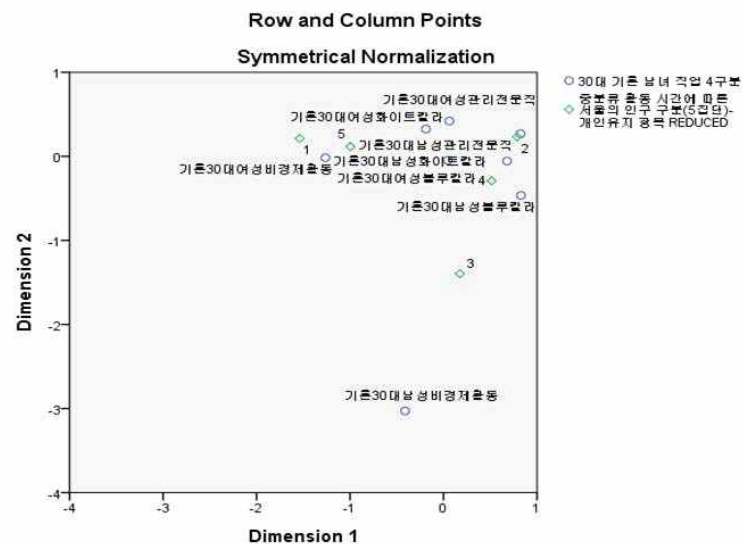
26

서울 시민의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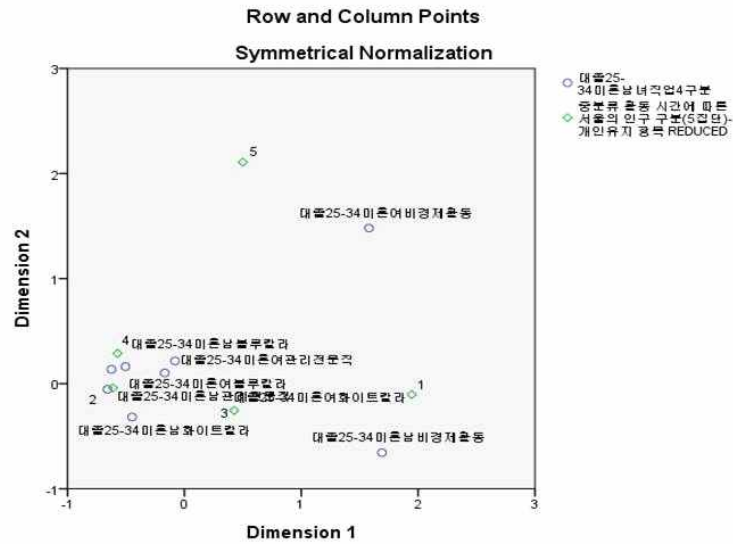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시간 사용 패턴의 5개 그룹과 인구사회적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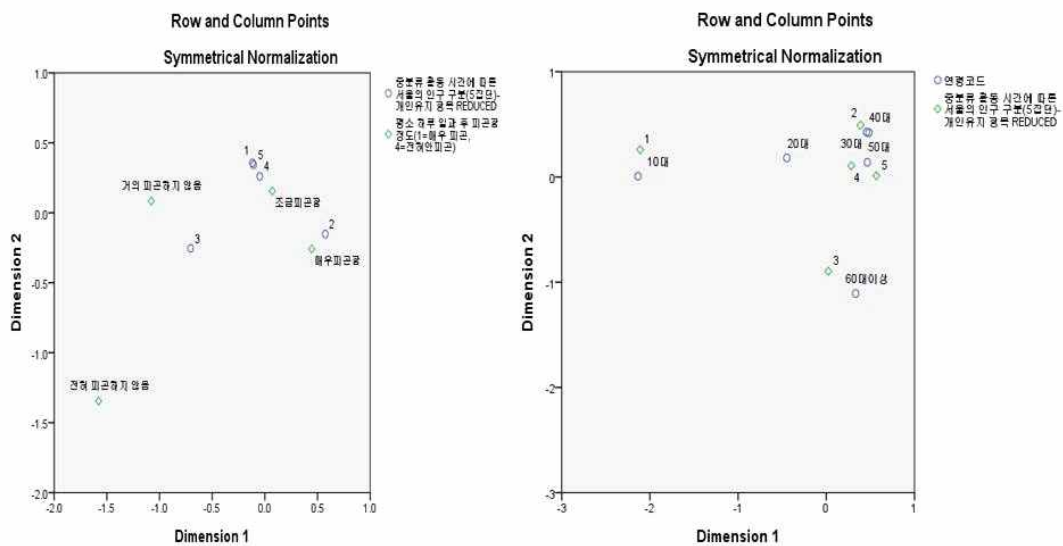


시간 사용 패턴의 5개 그룹과 인구사회적 유형화



29

시간 사용 패턴의 5개 그룹과 인구사회적 유형화



30

Life Time

서울시민들의 오늘 하루 시간은 ..

일과 **학습** 중심의 피곤한 하루의 생활 시간들로,

저소득층일수록 이동하는 시간도 길고,
30대 연령층은 일하지 않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시간 사용 패턴을
나타내고,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이든 아니든 가족 돌보기 등 가사관련 업무를 해야 하며,

시민들의 식사시간은 짧고,
여가교제의 시간은 TV 보기 등으로 채워지는
대도시의 강제된 바쁜 시간 사용으로 구성되었다.

31

Life Time

서울시민들의 시간의 재구성을 위해 ..

피곤하지 않는 하루의 삶을 위해서,

‘난 오늘이 피곤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시간을 재구성해야 한다.

8시간의 수면,

1시간30분 이내의 이동 시간,

식사시간 30분 늘이기를 통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 시간 배분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관련 활동시간 **1시간 줄이기**,
무료한 시간이 많은 고령자들의 시간 사용에 대한 지원 체계
남성들의 하루 시간 사용 균형 맞추기가 필요하다.

32

감사합니다

[분야별 발표1]

서울의 시간은 누구편인가?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일자리 분과위원



2015 서울시 제3회 정책박람회 함께서울포럼



서울의 시간은 누구 편인가?

-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2015. 9. 11

김 중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

시간
프레임

사회적 시선(social lens)

24시간 영업, 도시의 시간..?



2015년
서울의 시간
도시의 시간

[어떤 사회, 어떤 시간] 19세기 산업사회 vs. 21세기 패스트푸드 사회



롯데리아 서울 207개 매장

✓ 매장 91개 24시간 운영

→ 서울지역 43.9% 차지

✓ 24시간 매장(91개) 중

→ 86개(94.5%) 홈 서비스

[전국 1,281개 매장]

2015년 9월 6일 일요일

영화명	관람등급	상영시간	초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엔트맨	12세이상관람가	117	08:00	10:25	12:50	15:15	17:40	20:05	22:30	
(3D) 엔트맨	12세이상관람가	117		08:50	11:15			21:30	23:55	
오피스	15세이상관람가	111	07:50	10:10	12:30	14:50	17:10	19:40	22:10	24:40
러브 라이브! 더 스쿨 아이돌 무비	전체관람가	100				15:55	18:10	20:30		

MEGABOX

[사례] 한국 서울 유통업 영업시간 사례 - 이마트, 롯데백화점(2015)

신세계 이마트 양재점 영업시간

09월 휴점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점

오늘

쇼핑시간
09:00~24:00

롯데백화점 본점 영업시간

2015년 0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점 30분 연장 60분 연장

정상영업 : AM 10:30 ~ PM 08:00

월별 영업시간 확인하기

오늘 영업시간 10:30~20:30

이마트 양재점 영업안내

7 Jul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영업시간 AM 9 ~ PM 12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만 휴무입니다

2015년 0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점 30분 연장 60분 연장



서울의 시간

일과 삶의 균형(WLB)..?

[사례1] 서울지역유통 서비스 판매직 노동생활 세계 실태(2015.7)



- ✓ 구속노동시간 1 : 직장에 일을 하기 위해 머무르는 시간(출퇴근 시간 제외)
- ✓ 구속노동시간 2 : 출퇴근 시간 포함

[사례2]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 노동생활세계 사례(2015.5)

서울시 산하 A병원 간호사 노동생활
365일 3교대 사업장

[출근]	[병원 직장 내 노동생활 시간]			[퇴근]	[생활]	[수면 소요시간]		[준비]
06:36	06:40~16:30 [약 9시간50분 직장생활]			16:38	17:15~22:15	22:45~05:00 [6시간46분]		
소요 시간	실 근무 시간	식사 시간	휴게 시간	소요 시간	개인 활동	준비 시간	실 수면시간	기상 준비
31.5분	9시간12분	21.3분	15.4분	32.6분	5시간	38분	6시간18분	?

서울시 B위탁기관 노동자 노동생활
365일 3교대 사업장

[출근]	[기관 직장 내 노동생활 시간]			[퇴근]	[생활]	[수면 소요시간]		[준비]
07:46	07:50~17:00 [약 10시간50분 직장생활]			17:10	17:40~22:25	22:55~06:10 [7시간11분]		
소요 시간	실 근무 시간	식사 시간	휴게 시간	소요 시간	개인 활동	준비 시간	실 수면시간	기상 준비
21.6분	8시간10분	57.4분	44.4분	23.7분	4.5시간	61.2분	6시간1분	?

1-1. 시간빈곤과 갈등 논의 출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시간 갈등, 장시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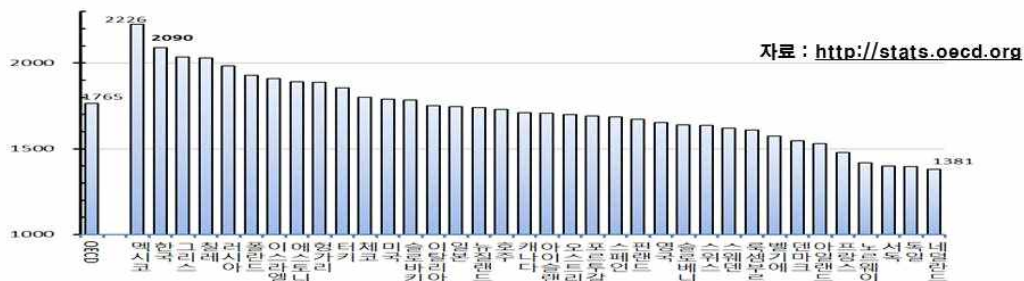
- ✓ 한국 노동시간 OECD보다 장시간(2,090시간 → OECD 평균 1,765 보다 325시간 더 일함)
- ✓ 시간빈곤, 갈등 초래 → 일과 삶의 균형(WLB), 건강과 산재, 일자리 창출/나누기 효과성 찾기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 ✓ 장시간 노동: 노동집약적 생산체제 → 고능력 생산체제 전환 지체 요인
- ✓ 일자리 문제: 고용의 질에 부정적 영향 →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시간의 사회적 재구성

- ✓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지역사회 '시간의 재구성' → 시간빈곤, 시간갈등 해결
- ✓ 노동시간이 일상의 시간과 연계 →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기여 → 노동생활세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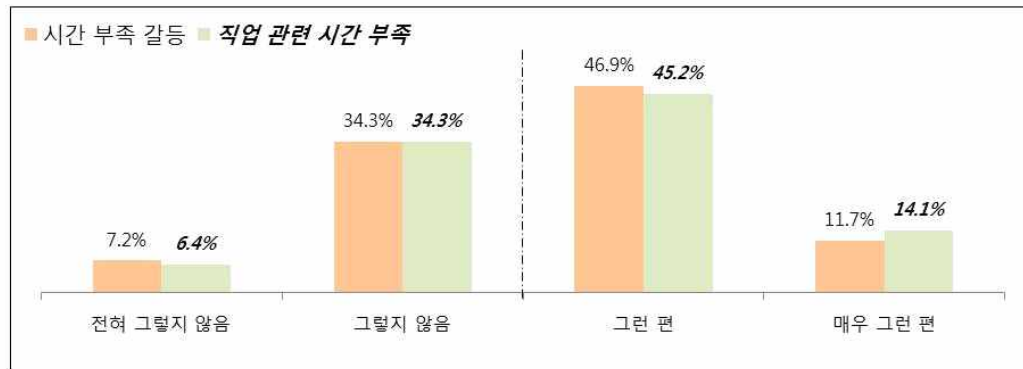


1-2. 서울시민의 시간갈등, 직업 관련 시간 부족 실태조사

시간의 재구성, 시간갈등

【질문1】 일상생활에서 시간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느끼십니까? 58.6%

【질문2】 직업(일)관련으로 인해 시간부족을 느끼십니까? 59.3%



자료 : 2015년 8월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원자료 재분석(N=1,000명 중 683명의 임금 노동자 추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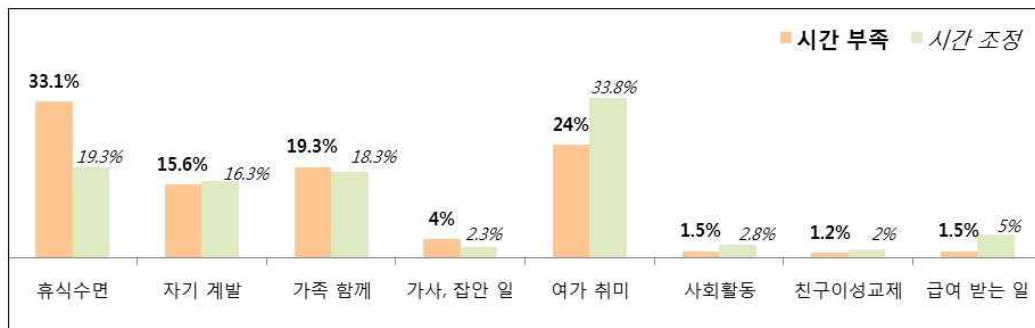
11

1-3. 서울시민의 시간부족의견과 시간 조정 의견

시간의 재구성, 노동시간 단축

【질문1】 (시간부족 응답) 어떤 활동을 위한 시간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십니까? 휴식수면 33.1%

【질문2】 (사용시간 조정 가능) 어떤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여가 취미 33.8%



자료 : 2015년 8월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원자료 재분석(시간부족 느낌 N=405, 시간조정 의향 N=683)

✓ 시간부족 경험 시간대

① PM 18시~22시 사이(42.2%)

② AM 6시~9시 사이(24%)

✓ 시간부족 경험자의 이유

① 직업 관련 활동(44.5%)

② 학업&자기개발(19.5%)

12

1-4.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 시간조정 활용 면접조사 의견

여가시간, 인간 다운 삶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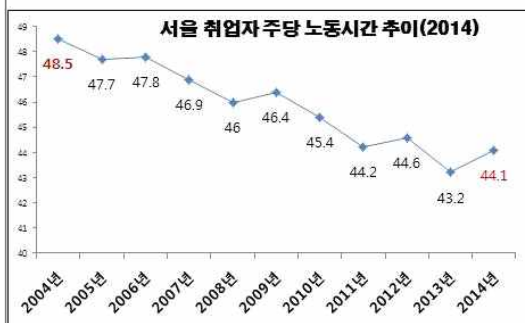


〈감추어진 욕구 분출〉

- ✓ 가구, 개인 생활 요구 ✓ 지역사회 참여, 활동
- ✓ 운동, 취미생활증가 ✓ 학업, 어학 등 자기개발

13

1-5. 서울의 노동시간 변화 추이 : 2004-2014



취업시간별 취업자 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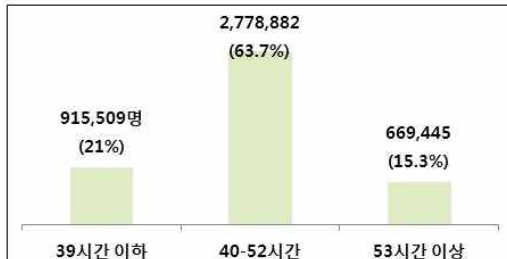
취업시간 취업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4시간 이상 근로(천명)	1,762	1,673	1,649	1,544	1,405	1,419	1,342	1,232	1,194	1,026	1,108
주당평균 취업시간	48.5	47.7	47.8	46.9	46.0	46.4	45.4	44.2	44.6	43.2	44.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지역 별도 분석, 각년도별(2004-201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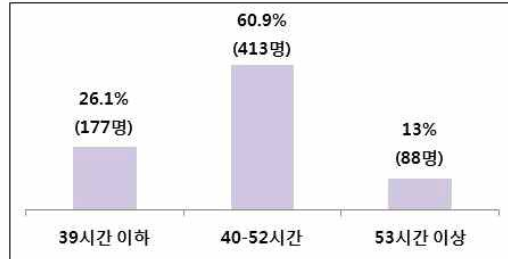
1-6. 서울의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해소 정책 추구 필요

서울지역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4, 평균 : 44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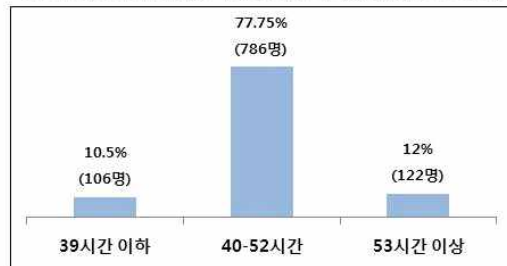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분석(2013 상반기)

서울지역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5, 평균 : 48H)



자료 :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임노동자 원자료 재분석(2015.8)

서울시 공공부문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5, 평균 : 45.3H)



자료 : 서울시의회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2015.6)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단축 정책

서울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 52시간 이상 초과 비율 약 12% - 15%

[*유럽연합 48시간 초과노동 규정]

15

[참조1]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 노동생활 세계 실태(2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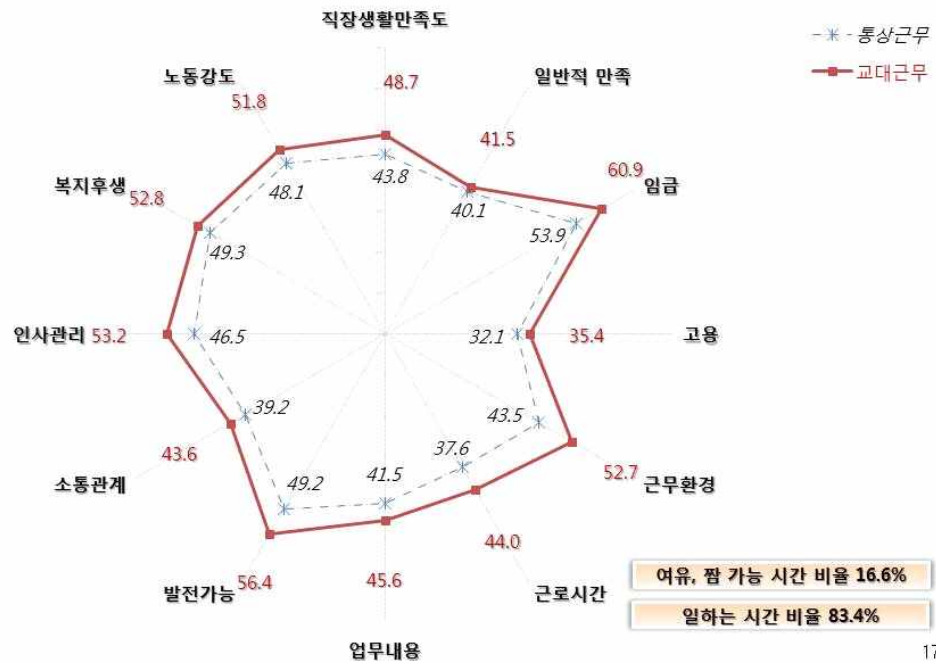
연차휴가
사용율
43.2%

	1일의 노동생활 세계					1주일 노동생활		월평균 휴일근무 횟수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출근 전 준비시간	퇴근 후 마무리시간	1주일 근로시간	초과근무 횟수	
전체	8.8	38.0	47.4	27.1	36.2	45.3	1.3	1.9
여성	8.5	37.1	48.6	22.5	27.3	43.6	1.0	1.8
남성	9.2	38.8	46.4	33.2	48.3	47.3	1.7	2.0
기혼	8.8	37.3	47.2	27.7	37.1	45.4	1.3	1.8
미혼	8.7	40.4	49.7	24.1	31.2	44.9	1.1	1.9
통상근무	8.8	38.5	49.1	28.0	45.5	45.8	1.6	1.6
교대근무	8.8	35.2	43.6	26.3	18.5	44.4	.7	2.4

설문조사 표본

조사 대상 직종/고용	응답 수	비율(%)	조사 대상 직종/고용	응답 수	비율(%)	조사대상 조직 유형	응답 수	비율(%)
서울시 공무원	182	17.4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50	4.8	본청	121	11.0
서울시 무기계약직(공무직)	103	9.8	산하기관 비정규직	60	5.7	직속기관	22	2.0
산하기관 정규직	413	39.4	자회사 정규직	156	14.9	사업소	205	18.8
			위탁기관 비정규직	83	7.9	산하기관	622	56.3
						위탁기관	134	12.1

[참조2]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 직장생활 만족도 (0점-100점, 중간 50점)



17



주요 해외 도시 사례,

시간의 정치 – 이탈리아, 독일

2-1.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위한 시간 개념 논쟁

'시간빈곤' 개념 - 주주자본주의 접근법(shareholder approach)

- ✓ 기업 조직 혹은 개인 문제, 노사 이자간 당사자 해결 강조
- **[미국]** '시간빈곤'이란? 1주일 168시간 중에서 개인 관리와 가사·보육 등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뺀 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를 의미. 최소한 1주일에 잠자고, 먹고, 쉬고, 가정을 돌볼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식 시작 (미국 레비경제연구소)
- **[한국]** 근로시간이 길수록 시간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시간빈곤 노동자의 95%가 35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시간빈곤 노동자의 95%가 35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였고, 가구 내에서 2명이 일하는 맞벌이 가정은 시간 부족률도 높게 나타남 (한국고용정보원, 2014)

'시간의 정치'(Zeitpolitik) 개념 - 이해당사자주의 접근법(stakeholder approach)

- ✓ 구조적 문제, 행위자, 거버넌스, 지역-산업 차원 해결 강조
- **[유럽]** 직장의 근무시간과 일상생활의 시간대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시간의 갈등을 당사자(지역사회 주민, 노동자)들이 참여·조정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높이는 활동(**공간과 시간의 조화**)
- 노동시간이 일상의 시간과 연계 → 일에 구속된 노동에서 탈피 필요성 →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즉, 일과 삶의 균형(WLB)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구

2-2. 시간의 정치 - 의미, 영역, 논의 시작

시간의 정치 (Zeitpolitik)

"근무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또는 학교 보내는 일, 부모 등 부양가족의 돌봄, 은행 또는 관공서 일, 시장 보는 일, 개인적 여가활동 등 일상에서 해야 할 일과 부딪치는 시간의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Possinger, 2011)

- ✓ **일상생활** : 직장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 가정/친구/친척, 여행/취미, 종교/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생활은 노동시간 길이와 형태에 의해 큰 영향
- ✓ **시간의 정치** : 직장의 근무시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비용 및 시간의 갈등을 조사하고, 당사자(지역주민/노사정) 참여·조정 → 일과 삶의 균형 활동
- ✓ **문제인식** : 그 동안 공간의 정치(도시계획, 공원조성, 건물설계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시간의 정치 소홀. 이는 행정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일상생활에의 관심 적은 편
- ✓ **출발시작** :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 보첸 여성운동에서 시작, 1990년대 유럽 일부 도시로 확산 → 지자체 새로운 정치적 영역 발전(파리, 브레멘, 하나우, 뮌헨, 함부르크 등)

2-3. 시간의 정치 사례 – 이탈리아 보첸

이탈리아 보첸(Bozen)

- 시간구조 파악
 - 유연한 시간 설계
 - 인간중심적 시간문화
- ① 10분 안에 어디든지
 - ② 아침에는 도시를 학생들에게
 - ③ 시민 목요일, 시간정치대학, 타임 코드(보첸의 시간들)
 - ④ 시간관측소/시간관리센터 설치
- 보첸 '시간의 정치' (1990년 헌법 36조)
시장 역할 규정, 상점 영업시간, 공공서비스 및 행정 시간 등을 이용자들의 복잡한 요구에 상응할 수 있도록 조정
 - 시간의 정치 실험 제도화
1993년 지자체 규정 변경 → 1994년 파일럿 프로젝트 행정관청 새로운 근무시간대, 유연한 학교 운영시간, 길어진 유치원의 오후 돌봄시간, 매달 한번 길어진 상점 영업시간, 미용업의 새로운 근무시간대 등 논의
 - 시간의 정치 발전 전략(2005, 협력적 입안회의)
시간계획 가이드라인(의회 통과) →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이용자들'(city user: 상인, 교외 통근자, 관광객 등)의 편의 및 행정시간과 서비스 시간대 개선, 공간 이용 개선

21

2-4. 시간의 정치 사례 – 독일 브레멘 베게삭

독일 브레멘-베게삭(Bremen-Vegesack)

- 시간과 도시의 질, 프로젝트
 - 시민친화적 구청 운영 '시간관리실'
 - 일상 친화적 베삭 만들기 포럼(협력 네트워크)
 - 3개 주제 원탁 모임
- ① 서비스 모임 : 근무시간 협상조정 '시민의 날'
 - ② 교통 모임 :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 ③ 양육 모임 :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기
- '네트워킹, 협력, 참여 및 소통' 4가지 활동
- 독일 베게삭 '시간과 도시의 질'
시민친화적 구청 '시간관리실' 개설 → '품질관리 통한 시민지향' → 시민 서비스 질 개선, 행정 효과와 경제성 높이는 데 중점
 - 시간관리실 프로젝트
주민 인식제고, 만남 대화 장소 운영(시간관리실), 서비스 질 향상 프로젝트 수행
✓ 공적/사적 서비스 제공자 시간기획 정보 수집·기록
✓ 지역 시민 욕구 조사, 갈등요소와 문제점 조사
✓ 당사자 만남 주선, 시민 입장에서 시간 조정 →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수립
 - 일상 친화적 베삭 만들기 포럼
✓ 기관, 시설, 기업, 주민 협력하여 시간의 갈등 및 문제점 발견
✓ '일상친화적 베게삭 만들기' 포럼 설립 및 갈등 관련 집단과의 원탁회의 주재
✓ 시민 관심과 이해관계 파악 → 시간기획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활성화
✓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공적/집합적 시간기획 투명성 제고
✓ 시민의식 높이기 행사, 세미나, 홍보 활동

22

2-5. 시간의 정치 사례 – 독일 볼프스크부르크

독일 볼프스크부르크(Wolfsburg)

- 폭스바겐 모델
-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ing) ‘28.8시간노동’
- 사회적 시간들 ‘창조적 여가활동’
→ 150여개 다양한 형태 근무시간 변화 대응

‘창조적 여가활동’

시민사회단체(70여 개) 참여 → 여가활동상담과 프로그램 제공 → 공동 프로젝트 수행

소극적(수동적) 여가활동 → 적극적(창조적) 활동으로 전환 노력(예: 시내 쇼핑센터에 여가상담소 설치)

휴가와 도시생활	인근도시방문	양육과 여성
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부품업체	지역행정과 시간
스포츠	창조적 여가생활 협의체	요식업
교통	가족관계	도서관

[행정네트워크 – 폭스바겐 노사]

기업 근무형태 변화가 지역사회 행정과 일상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책임 인식 → 지자체 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23

2-6. 시간의 정치 사례 통해 본 함의 – 서울시 검토와 논의

시간의 정치 논의 함의

- ✓ **첫째**, 공공과 민간부문 조직 운영 및 근무형태 변화는 개별 노동자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사회의 생활리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시간 갈등 야기
- ✓ **둘째**, 이를 인지하고 유럽(진보적 지자체)에서는 일찍이 근무형태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의 정치’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
- ✓ **셋째**, 서울시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운영/근무형태 변경(장시간 노동 축소 → 노동시간 단축, 불필요한 심야 운영 폐지, 교대제 합리적 변경, 공공시설 운영 시간대 변경 등)은 서울의 생활리듬에 영향 효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 **첫째**, 시간의 정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유럽의 경우처럼 ‘교통모임’, ‘양육모임’, ‘창조적 여가활동 위한 포럼’ 등 각 이해 당사자의 영역별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필요
- ✓ **둘째**, 이 때 지역사회의 생활리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참여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식 높이는 계기
- ✓ **셋째**, 시청 내 시간의 정치 총괄하는, 유럽의 ‘시간관리센터’와 같은 부서 설치 검토 → 시범운영 이후 가능성/필요성/파급효과 높은 영역으로 점진적 확대

여가활동중요성

- ✓ **첫째**, 노동자 대부분 ‘소극적’ (수동적) 여가활동 익숙 → 가족, 지역사회와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병원 교대제 노동자/간호사 52%)
- ✓ **둘째**, 조직운영, 노동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등 지역사회와 소통 프로그램 → ‘적극적’ (창조적) 여가, 시간활동을 위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도 병행 과제

24



서울의 시간, 재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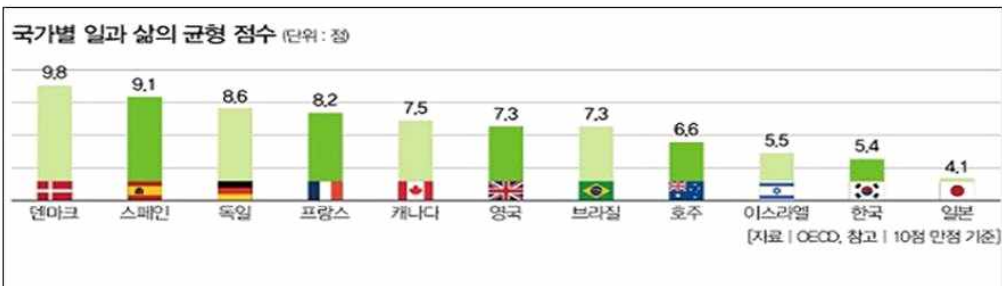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3-1.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위한 국제 기준 지표

'괜찮은 노동시간'
(decent working time, 국제노동기구 2007)

- ① 노동자의 건강 및 촉진하는 건강한 노동시간
- ②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 ③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노동시간
- ④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시키는 생산적 노동시간
- ⑤ 노동자의 선택권과 영향력을 촉진하는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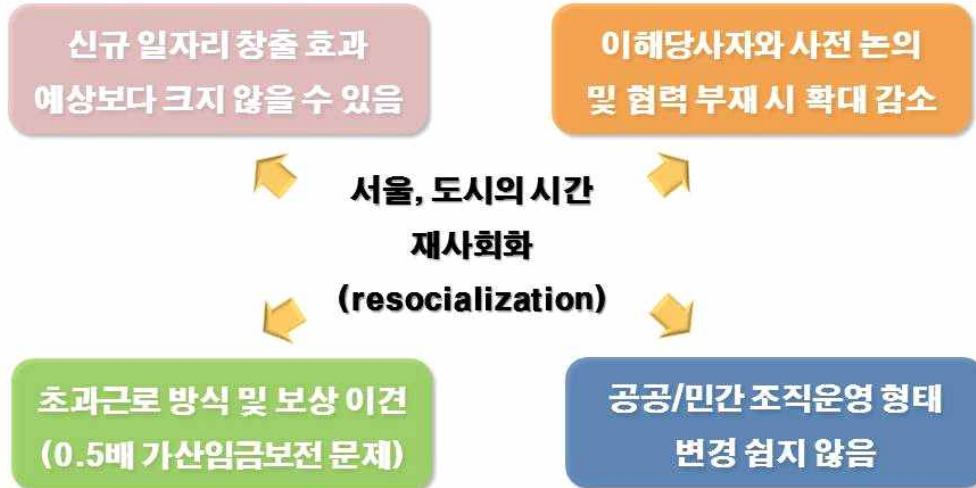
- ✓ 양질의 노동시간
측정 지표(ILO, 1999)
- ① 장시간 노동비용
 - ②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



3-2. 시간의 정치, 서울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산 전략

‘보다 많고 나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more and better jobs),
‘일자리 질’ (quality of employment)

공공 및 민간 조직운영과 근무형태 변화
→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27

3-3. ‘시간의 정치’ 논의 방향(안) –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P

인간 다운 삶, 시간의 정치

1. 서울의 시간 재사회화 → 조례 제정 (rule setting)

가칭 ‘시간주권 등 조직 운영과 시간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서울의 시간 재구조화 → 정책 모색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삶의 질)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협약

3. 서울의 시간 관리이행 → 모니터링 (센터, 위원회, 대학강좌, 프로그램)

가칭 ‘창조적 시간 관리 위원회’, ‘시간관리센터’ 설치/운영

[참조]

노동시간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2015.9)

□ 근로기준법

- 출·퇴근시간기특제 및 기록보존의무
- 소위 ‘포괄임금제’ 계약 제한

□ 고용정책기본법

-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신설
- 노동시간공시제 신설(각 기업별)
- 국가차원 노동시간단축 시책수립
- 고용정책기본계획상 노동시간단축 계획 수립

□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함께 마련(안 별표 제100호 신설)

28

3-4. 서울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서울 창출 가능 일자리 추정

- ✓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을 없애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52시간) 준수하면 서울지역 새로운 일자리를 약 **13만7천개** 정도 창출 할 수 있음(*단순 추정)

- ① 2014년 현재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66만9천명(669,445명)**
- ② 주52시간 초과 노동시간 모두 합치면 **713만3천 시간 (7,133,703시간)**
- ③ 이를 주52시간으로 나누면 **새로운 일자리 13만7개 가능**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적용 시,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 추정

	노동자 수 (천명)	상한선 초과 노동시간 합계 (천시간)	1인당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수 (개)
전국 주 52시간 초과	3,567	32,372	9.1	624,466
서울지역 주 52시간 초과	669	7,133	9.0	137,186

자료: 1) 전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원자료에서 계산(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15)

2) 서울: 통계청 지역별고용구조조사. 2014년 상반기 원자료에서 계산(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2015)

[참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비교

중앙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주요 영역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주요 영역	
1. 공공고용서비스 · 행정		1. 고용서비스: 일자리 플러스센터	
2. 훈련	직업훈련 연수 및 인턴	2. 훈련	능력개발: 기술교육원, SAB 산하기관 인턴
3. 일자리나누기		3.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진행 모색 → 겸함은 노동시간 만들기(노동시간 단축)	
4. 고용인센티브		4. 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5. 직접 일자리 창출		5. 직접 일자리 창출: 뉴딜일자리 사업(*청년허브)	
6. 창업지원		6. 창업지원: 챌린지 1000프로젝트	
7. 실직자소득보장		7. 유스 개런티(도입 검토 예정)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전반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 대책 미비. 특히 수요측면의 청년고용정책은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일명: 청년인턴)과 직접일자리 창출사업(뉴딜 사업)이 대부분이고, 민간부문 진행 사업은 캠페인 성격 사업들로 진행(예: 2015년 임금피크제 시행 연동 주요 대기업 청년 고용 발표)

[예시]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공공행정 콜센터 현황 - 운영 요일 시간

유럽형 콜센터 독일, 프랑스

- ✓ 프랑스 : Allo Service Public 3939
→ 1956년 시작(운영시간 8:30-16:00)
*파리 Paris info le 3975(시 운영)
- ✓ 독일 : Bürgertelefon 115
→ 1965년 시작(운영시간 07:00-18:00)
[각 연방 주정부: Buegertelefon115]

영미형 콜센터 영국, 캐나다

- ✓ 영국 : Hull Connect 300300
→ 2000년 시작(운영시간 08:00-19:00)
- ✓ 캐나다 : Toronto's 311
→ 365일 24시간 운영

과제 모색 예시

1. 120다산콜센터 : 365(24h) vs. 야간폐지 vs. 토/일 운영 재검토?
2. 콜 업무 현황 : 주말(토+일) 이틀간 콜 → 평일 하루 수준의 80% 수준
3. 좋은 일자리 + 괜찮은 노동시간 프로젝트 방향
 - ① 심야노동 폐지 → 야간 인력 30명-40명 주간/저녁 배치(시민 서비스 향상)
 - ② 노동시간 단축 → 7시간 노동체제 전환, 일자리 나누기(좋은 일자리 창출)

[참조] 미국 311 공공행정 콜센터 지역별 현황 - 운영 요일 시간

365(24H), 매일

365일, 24시간운영

- ✓ Chicago
- ✓ New York City
- ✓ San Francisco
- ✓ Charlotte-Mecklenburg, NC

매일, 평상시간 운영

- ✓ Baltimore, MD (AM 6 - PM 10)
- ✓ Houston, TX (AM 6 - PM 12)
- ✓ San Antonio, TX (AM 7 - PM 11)
- ✓ Denver 평일 (AM 7 - PM 8)
주말 (AM 8 - PM 5)

주중, 주말 일부

주중(월-금), 평상시간운영

- ✓ Detroit (AM 8 - PM 5:30)
- ✓ Pittsburgh, PA (AM 8 - PM 4:30)
- ✓ Columbus, OH (AM 7 - PM 8)
- ✓ Dallas (AM 7 - PM 8)

주중 + 토요일, 평상시간운영

- ✓ Miami-Dade, FL 평일(AM 6 - PM 10)
주말(AM 8 - PM 5)
- ✓ Philadelphia, PA 평일(AM 8 - PM 8)
주말(AM 9 - PM 5)

미국 311 콜센터운영 및 서비스제공 시간대

→ 지역별 운영 요일, 시간대 상이, 365일 운영 콜센터 소수 지역



감사합니다.

간략한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분야별 발표2]

예술인에게 ‘시간’은 무엇인가?

이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문화관광 분과위원장

예술가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함께서울포럼> 문화관광보좌관)



1. 예술가에게 시간이란?-두 개의 초상

○ "시계, 그림자, 꽃봉우리" 아이콘: 고통으로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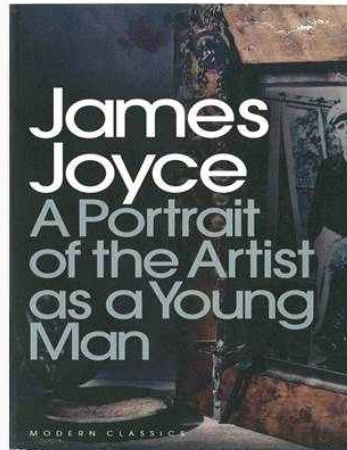


Helen Lundberg:
"Double Portrait of the
Artist in Time"(1935)

1. 예술가에게 시간이란?-두 개의 초상

03

- 새와 바닷가에 서 있는 소녀,
에피파니(epiphany, 현시-찰나의 시간)



제임스 조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1916)

2. 예술가와 시간의 양면성

04

- 창작의 시간과 노동의 시간은 분리될 수 없다
모네, <수련연작>



2. 예술가와 시간의 양면성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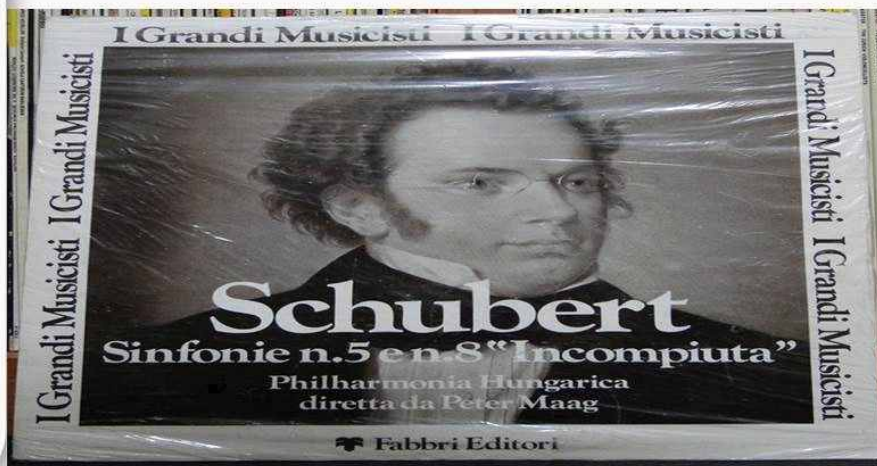
- 창작의 시간과 노동의 시간은 분리될 수 없다
제프리 초서, <켄터베리 이야기>



2. 예술가와 시간의 양면성

06

- 창작의 시간과 노동의 시간은 분리될 수 없다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2. 예술가와 시간의 양면성

07

○ 연습의 시간은 길고 무대의 시간은 짧다



2. 예술가와 시간의 양면성

08

○ 연습의 시간은 길고 무대의 시간은 짧다



3. 예술가에게 시간은 얼마나 특별한가

09

○ 가치로서의 시간



3. 예술가에게 시간은 얼마나 특별한가

10

○ 감정과 고통으로서 시간
프란시스베이컨 <교황 이노센트 10세 초상화>



3. 예술가에게 시간은 얼마나 특별한가

11

- 히스테리와 환의의 시간
대런 아르노프스키 <Black Swan>(2011)



3. 예술가에게 시간은 얼마나 특별한가

12

- 작업노동의 시간-재능기부&가난한 예술가



4. 예술인들은 가난해야하는가

13

- 한스 애빙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하는가?>
절대적인 창작시간의 보상체계



4. 예술인들은 가난해야하는가

14

- 가난한 예술가 생계벌이를 위한 노동시간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2013년 최저생계비(월)



(1인 가족)
57만2,000원



(2인 가족)
97만4,000원



(4인 가족)
154만6,000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2012년 기준)



문화예술인 4대 보험
가입 비율(2012년 기준)

건강보험(의료보험) 97.8%
국민연금 66.7%
신재보험 27.9%
고용보험 3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예술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15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형 노동:
심각하다 64.9%, 심각하지 않다 9.4%
- 창작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공공지원
필요하다 60.0%, 불필요 13.1%
- 창작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형태
**창작활동기회 확대 (42.5%),
제작비지원 (18.8%), 사례비 지원 (14.3%),
실업급여지원 (13.7), 예술인 보험 연금지원 (10.0%)**



6. 예술인의 시공간 확보에 대한 제안

16

예술인을 위한 서울 플랜

- 창작시간의 장기지속에 대한 이해
- 심미적 시간, 감성적 시간에 대한 이해
- 예술가의 고유한 시간 소비에 대한 이해
- 창작-시간 확보와 생계를 위한 임금노동 축소
- 예술인들의 창작 시간의 안정화를 위한 공간의 구축
- 예술인들이란 생산자의 창작 시간은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시간과 비례

서교예술실험센터
 매일 넷째주 금요일 모든 만남 5월의 주제!
젊은 예술가들에게 살림살이란?
 시간·장소 : 05.22(금) 오후 6시 센터 1층 예술다방
 접수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접수 (seogyo@sfac.or.kr)
 문의 : 02-333-0246

[분야별 발표3]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 갈등

엄 규 속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여성 분과위원장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갈등



함께서울포럼 여성분과

발제: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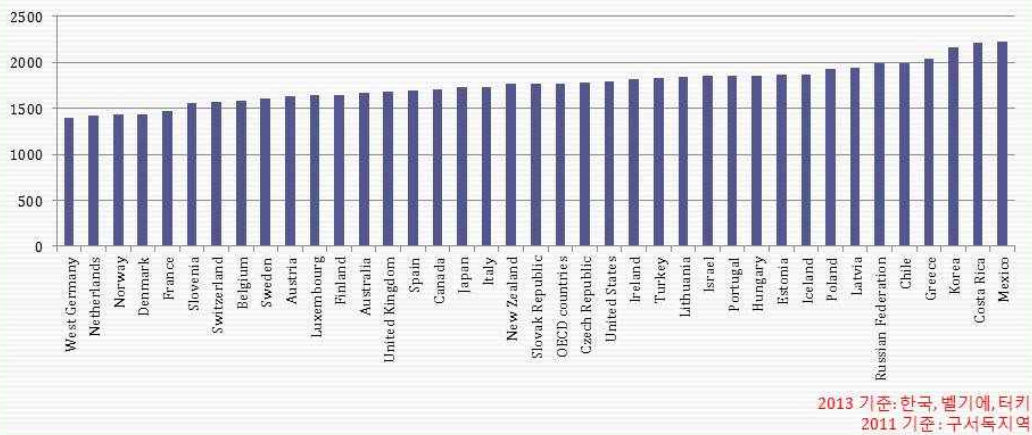
- 1)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차이
 - 성별 격차와 시간 사이의 관계
- 2) 시간부족 경험의 성별 차이
 - 어떤 사람이 왜 어느 시점에서 시간부족과 시간갈등을 경험하는가?
- 3)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외국의 시도들
- 4)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1-1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돌봄 부담

3

- 연간 노동시간 2163시간(2013)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770시간

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2014)



자료: 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hours-worked/average-annual-hours-actually-worked_data-00303-en

1-1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돌봄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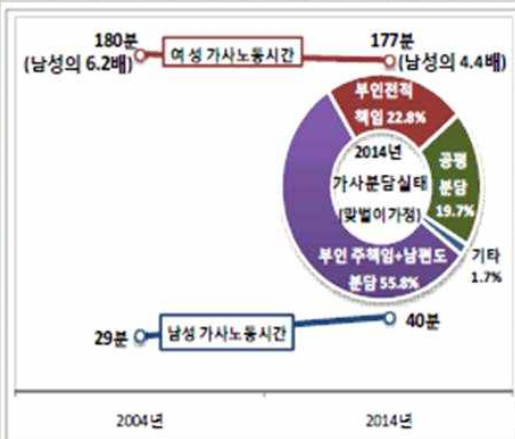
4

- 남성과 여성의 돌봄 시간 격차 매우 큼
 - 가정관리 및 가족 및 가구원 돌봄에 할당되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가사노동시간 남성 47분, 여성은 3시간 28분으로 2시간 41분 차이남 (2014). 5년 전에 비해 격차 14분 감소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 여성에게 돌봄과 가사부담이 편중되어 일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초래
 - 자녀 양육기에 경력단절로도 이어지는 요인

I-2 서울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 - 가사노동, 2014

5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분담 실태>



- 2014년 만 1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4.4배
- 지난 10년 사이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 대부분 전담

E-서울통계 97호, 통계로 본 서울여성의 삶

I-2 서울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분담 -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

6

가사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분	부인이 주도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구분	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계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자	53.6	5.8	47.8	44.0	2.4	2.1	0.3
여자	45.8	2.6	43.2	52.7	1.5	1.5	-

가사분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류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남자	29.3	57.7	12.2	0.6	0.2
여자	31.9	53.8	7.6	6.7	-

자료: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cot=017&sr1_dtl=10217

I-3 돌봄과 일할 권리?

7

• 남성

- 일자리에 대한 권리

• 여성

- 일자리에 대한 권리 + 돌봄/가사노동 부담의 재배치를 의미

I-3 돌봄과 일할 권리?

8

• 초기 근대

- 남성가장 & 여성전업주부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발전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

• 후기 근대

- 취업노동영역의 우위
- 취업에 근거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계선 무너짐(Entgrenzung).
- Normal Family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 ✖ 노동시간 유연화
 - ✖ 노동장소 유연화
 - ✖ 불안정고용 증가와 정상적 노동이력의 감소
 - ✖ 노동자에서 노동기업가로

→ 취업노동시간의 밀도 증가→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도 영향 미침. 초기 근대의 성별 경계선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분업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시간압박이 사적 영역의 시간 복지를 침해

(Karin Jurczyk, "Geschlechterverhältnisse und Alltagsarrangements - Neue Konturen der Teilung von Zeit und Arbeit", in: Ulrich Mückenberger · Siegfried Timpf (Hrsg.), Zukünfte der europäischen Stad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CF> 정지훈, 카카오택시와 알고리즘 노동자 <http://hankookilbo.com/m/v/e99f624e9f4d421ca37da9af6dac3e4e>.

I-4 여성과 남성의 시간경험 차이

9

- 여성은 남성만큼 일하지만, 돌봄 및 가사노동은 훨씬 더 많이 함
 - 평균노동시간의 차이보다 돌봄 및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의 성별 차이가 훨씬 큼
-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 갈등 경험
 -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시간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됨
- 공적영역, 노동시장의 직선적이고 생산성 위주의 시간배열에 맞추다 보면 돌봄,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위축되거나 시간의 충돌 발생
 - 주로 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시간갈등을 경험하게 됨
-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을 벗어나 있는 노동은 공적 영역의 시간리듬에 맞추어 재배열되어야 하고, 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시간 요구가 중첩되는 지점에는 시간부족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됨

I-5 시간갈등과 압축적 시간경험

10

- 조주은 『기획된 가족』 (2013)
 - 중산층 화이트칼라 맞벌이 여성의 시간갈등과 압축적 시간경험 - 노동시장의 요구와 가족의 돌봄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압축적 시간경험을 함
 - ✦ 시간의 동시성: 돌봄과 공적 과제의 충돌
 - ✦ 시간의 밀도 강화: 관리적 돌봄노동과 업무량 증가
 - ✦ 시간의 최적화: 과제와 가족관계 기획
 -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테일러리즘화

예> 출근준비하는 한시간 동안 가사, 돌봄 관련 열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시행
출근준비-자녀깨우기-가족식사준비-침실 정리-식탁차리기-자녀 준비시키기-식사-자녀 머리 빗기-식탁치우기-남편 배웅-설거지및 부엌 정리-욕실에서 출근 준비-옷 입고 화장-자녀들 등교/등원 시키기-현관 잠그고 출근



www.shutterstock.com · 91400822

II-1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시간대별 시간부족

11

- 하루 중 가장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시간대

	오전 6-9시	오전 9-12시	오후 12-15시	오후 15-18시	오후 18-22시	오후 22시-오전 6시
여성	25.6	13.9	6.3	9.6	37.4	7.8
남성	22.1	14.3	5.7	10.2	41.1	6.5

서울연구원, 민선6기 서울시정 전반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015. 8

II-1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

12

			시간부족 사유					전체
			직업 관련 활동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담	가사 노동	학업 및 자기계발	기타	
시간부족 시간대	오전 6~9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4.7%	21.6%	16.9%	17.4%	9.3%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21.0%	29.1%	22.6%	19.9%	42.3%	23.6%
	오전 9~12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56.7%	16.3%	10.6%	12.8%	3.5%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20.5%	13.1%	8.5%	8.7%	9.6%	14.1%
	오후 12~15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8.3%	15.0%	16.7%	23.3%	6.7%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5.9%	5.1%	5.6%	6.8%	7.7%	6.0%
	오후 15~18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65.7%	10.1%	12.1%	10.1%	2.0%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16.7%	5.7%	6.8%	4.9%	3.8%	9.9%
	오후 18~22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2.4%	17.1%	22.4%	26.0%	2.0%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32.6%	38.3%	49.7%	49.5%	15.4%	39.2%
	오후 22~오전 6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18.1%	20.8%	16.7%	29.2%	15.3%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3.3%	8.6%	6.8%	10.2%	21.2%	7.2%
전체		빈도	390	175	177	206	52	1000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9.0%	17.5%	17.7%	20.6%	5.2%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I-2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

13

직업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유직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63.7%	36.3%	100.0%
			성별 중 %	51.2%	34.8%	43.7%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시간부족 이유 중 %	53.5%	46.5%	100.0%
			성별 중 %	16.0%	16.6%	16.2%
		가사 노동	시간부족 이유 중 %	24.4%	75.6%	100.0%
			성별 중 %	6.3%	25.7%	15.5%
		학업 및 자기개발	시간부족 이유 중 %	56.4%	43.6%	100.0%
			성별 중 %	20.4%	18.8%	19.6%
		기타	시간부족 이유 중 %	61.5%	38.5%	100.0%
			성별 중 %	5.6%	4.1%	4.9%
	전체		빈도	432	262	794
			시간부족 이유 중 %	54.4%	45.6%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41.9%	58.1%	100.0%
무직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41.9%	58.1%	100.0%
			성별 중 %	31.6%	16.8%	20.9%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시간부족 이유 중 %	19.6%	80.4%	100.0%
			성별 중 %	15.8%	24.8%	22.3%
		가사 노동	시간부족 이유 중 %	5.6%	34.4%	100.0%
			성별 중 %	5.3%	34.2%	26.2%
		학업 및 자기개발	시간부족 이유 중 %	48.0%	52.0%	100.0%
			성별 중 %	42.1%	17.4%	24.3%
		기타	시간부족 이유 중 %	23.1%	76.9%	100.0%
			성별 중 %	5.3%	6.7%	6.3%
	전체		빈도	57	149	206
			시간부족 이유 중 %	27.7%	72.3%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II-3 시간부족의 주요 사유

14

- 이른 아침시간과 퇴근 이후의 시간에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비중이 남녀 모두 높음
 - 남녀 모두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출근 전과 퇴근 이후 시간대에 가정 내 활동에 대한 요구와 직업에서의 요구가 충돌.
-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
- 남성은 오후 18시 이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점을 느끼고 있음

II-4 시간갈등의 유형

15

- 특정 시간대의 시간부족은 충돌하는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발생
- “가사노동의 테일러리즘화”
 - 자녀에 대한 돌봄을 공적/사적 서비스에 의뢰, 부부 또는 가족원 사이의 분담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시간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
- 시간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 자녀, 가족구성원 또는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초과근무, 잔업
 - 교통체증
 - 관공서 운영시간이 방문가능 시간대가 아님
 - 자녀의 여가시간(방과후, 방학, 휴일 등)에 근무해야 함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긴 출퇴근시간
 - 병원개원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움
 - 학교방학
 - 학교, 어린이집의 등교/등원 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음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음
 - 가족 또는 주변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Kommunale Zeitpolitik für Familien. Ein Leitfadens für die Praxis: Familien unterstützen, Standorte sichern, Unternehmen fördern, Berlin, 2014: 75쪽)

II-4 시간갈등의 유형

16

유형	성별	자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각, 결근, 조퇴, 휴직 등)	여성	4.3	24.7	27.6	26.0	17.4
	남성	1.6	19.0	27.6	33.5	18.2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성	12.0	25.6	31.1	20.7	10.2
	남성	12.5	22.1	32.5	22.7	10.2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다 (방학, 학교 등하교 시간 등)	여성	10.4	26.8	29.9	19.4	13.5
	남성	6.7	25.2	27.4	25.2	15.5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30.5	31.1	20.0	10.2	8.2
	남성	20.9	36.4	24.5	11.5	6.7

서울연구원, 민선6기 서울시정 전반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015. 8

II-5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7

- 성별을 기준으로 연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근로시간,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앞의 4가지 시간갈등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음(회귀분석)

II-5-1)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8

1)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b	유의수준
성별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12*	.003
혼인상태	여성 중에서는 기혼여성이 더 자주 경험	.155*	.033
성별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3*	.004
자녀유무	여성 중에서는 자녀 있는 여성이 더 자주 경험	.145*	.039
성별	같은 연령이라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1*	.004
연령	여성 내에서는 연령의 고저에 영향을 받지 않음	.008	.737
성별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 없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6*	.003
노동시간	여성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갈등 경험의 차이 없음	-9.642E-5	.960
성별	같은 교육수준에서 여성이 더 자주 경험	-.196*	.005
교육수준	교육수준 차이는 시간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027	.632
성별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여성이 더 자주 경험	-.185*	.008
소득수준	소득이 높은 여성도 가족이 아플 경우 어려움 겪음	.043*	.034

II-5-2)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9

2)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		b	유의수준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52	.485
혼인상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자주 경험	-.253*	.001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050	.494
자녀유무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211*	.005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071	.329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경험	.170*	.000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082	.265
노동시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갈등을 경험	-.007*	.000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54	.472
교육수준	교육수준의 영향 없음	-.003	.963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67	.366
소득수준	소득수준의 영향 없음	-.039	.073

II-5-3)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20

3)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어려움을 겪음 (방학, 등하교 시간 등)		b	유의수준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195*	.010
혼인상태	혼인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음	.018	.817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118	.113
자녀유무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452*	.000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198*	.008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경험	.101*	.000
성별	여성일수록 영향을 받음	-.217*	.004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길수록 영향을 받음	-.007*	.000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209*	.006
교육수준	교육수준의 영향 있을 수 있음	-.119	.051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169*	.024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유의미 하지 않음	.052	.018

II-5-4)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21

4)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어려움을 겪음		b	유의수준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90	.238
혼인상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자주 경험	-.463*	.000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118	.113
자녀유무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452*	.000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겪음	-.144*	.049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겪음	.200*	.000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있음	-.145	.055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길수록 갈등을 더 겪음	-.006*	.007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136	.074
교육수준	같은 성별 안에서 교육수준의 차이 없음	-.070	.252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130	.088
소득수준	같은 성별 안에서 소득수준의 차이 없음	-.016	.464

요약

22

- 사적인 영역에서 자녀나 가족의 질병은 여성의 돌봄부담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시간갈등을 초래함
- 자녀의 방학,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등원/등교시간 등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공적 영역의 시간흐름과 단기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도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갈등을 겪음
- 장시간노동은 성별과 상관 없이 시간갈등의 요인임
 - 공적 영역의 시간흐름과 시간들이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분담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다고 느끼게 됨
- 일시적인 시간갈등을 초래하는 공공기관의 휴무, 은행이나 관공서의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혼인상태, 자녀유무, 노동시간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침

III -1외국의 시간갈등 극복 정책

23

- 지역 시간 정책 (Local time policy)
 - 노동시간, 공적/사적 서비스 시간, 도시의 시간 스케줄을 인간,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간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시도.
 -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의 일상생활 패턴에 초점을 맞춤
 - 이탈리아의 TEMPI DELLA CITTA (90년대 초반)에서 출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등으로 확대.

Europäische Stiftung zur Verbesserung der Lebens- und Arbeitsbedingungen, Zeiten in der Stadt und Lebensqualität

III-1 외국의 시간갈등 극복 정책

24

- 지역 시간 정책 (Local time policy)
 - 도시에서의 삶이 점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싹트면서 공간정책(영역별 개발계획, 도시 계획 등)에서부터 시간 조직 및 시간 복지의 영역으로 관심이 옮겨감
 - ✖ 도시의 시간정책은 직업생활, 공적, 사적 서비스 시간, 도시 시간스케줄을 조정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 ✖ 도시에서 일, 가족, 여가의 균형을 찾는데 느끼는 시간압축 경험, (특히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탄생
 - ✖ 다양한 지역정책의 영역에 초점을 맞춤 : 교통, 학교, 아동 및 노인 돌봄, 안전, 서비스, 도시계획, 일·생활균형 등
 - 이 분야들을 인간적이고 시간인지적인 모드로 재구조화
 - ✖ 지역 시간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참여적 정책

III- 2European Council recommendation & resolution for local time policy

25

- Council of Europe –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19th Session
26–28 October 2010: Recommendation 295 (2010) ‘Social time, leisure time: which local time planning policy?’
- Council of Europe –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19th Session
26–28 October 2010: Resolution 313 (2010) ‘Social time, leisure time: which local time planning policy?’ 채택

III-3 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26

- 정책의 영역
 - 시간효율적 이동성
 -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및 훈련/교육
 - 유연한 서비스체계의 지원
 - 시민근접적, 서비스 지향적 행정체계
 - 돌봄 및 훈련 인프라
 -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건강서비스
 - 가족친화적 여가활동 제공

III-3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27

- 시간갈등 영역별 분석
 - 시간갈등 내용과 그 원인 – 해결방법 예시-목표설정 및 유의사항
 - ✖ 목표설정-개별목표- 달성도구
 - ✖ 가능한 협력 파트너의 모색

Handlungsfeld II: Betreuungs- und Bildungsinfrastrukturangebote nach Maß

Analyse der Zeitkonflikte sowie Ableitung von Zielsetzungen		
Zeitkonflikte und Ursachen	Beispiele für Erhebungen	Zielsetzungen und Bemerkungen
I Krankheit (Kind/er, Partner/-in, eigene): Betreuung des Kindes/der Kinder	I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Zahl der Plätze in Kitas, Zahl der Tagesmütter/-väter, Betreuungsangebote für Schulkinder an Schulen (z. B. Mittagsbetreuung), verlässliche Ferienangebote	1. Verlässliche Kinder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
I Unzureichende Betreuungsangebote bzw. -zeiten	I Betreuungsangebote für hilfe- und pflegebedürftige Angehörige: mobile Pflege- und Hilfsdienste	2. Betreuungsangebote für hilfe- und pflegebedürftige Angehörige
I Beginn der Schule bzw. Betreuungseinrichtung mit dem Beginn der Arbeit nicht abgestimmt	I Öffnungszeiten von Betreuungseinrichtungen: früheste/ späteste Öffnungszeiten der Kitas, Unterrichtsbeginn und Kernzeiten in Schulen und Horten	3. Flexible Öffnungszeiten
I Unzuverlässigkeit des sozialen/familiären Umfelds, z. B. Ausfall von angekündigter Unterstützung	I –	I –
I –		

1. Zielsetzung: Verlässliche Kinder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

Die öffentlichen 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 sollen zeitlich aufeinander abgestimmt, verlässlich und über das gesamte Jahr hinweg verfügbar sein, um den berufsbedingten Zeitbedarf der Eltern abzudecken.

Einzelziele	Instrumente	Bemerkungen
Verlässliche Kernzeiten in Schule und Hort	Systematische Berücksichtigung verlässlicher Angebote in der Kinder- und Jugendhilfeplanung, der Schulentwicklungsplanung und der Sozialplanung	
Verlässliche Übergänge zwischen den Schul- und Betreuungsangeboten	Abstimmung der Betreuungszeiten (in Kita, Schulen) untereinander sowie mit Arbeitszeiten und Nahverkehrstaktungen	
Ganztagschulen	Förderung ergänzender Betreuungsangebote, z. B. Leihomas, Babysitterkurse, ehrenamtliche Familienhelferinnen und Familienhelfer	
Notfallbetreuung in Randzeiten oder bei Krankheit	Angebote zur Vermittlung von Notfallbetreuung, z. B. durch Tagesmütter/-väter oder ehrenamtliche Familienhelferinnen und Familienhelfer	
Ferienbetreuung während der Schulferienzeiten	Stützpunkte zur Notfallbetreuung, bei denen Unternehmen Mitglied werden können	
Betreuung in vorlesungsfreien Zeiten an Hochschulen	Förderung privat-gewerblicher Kitaträger mit erweiterten oder ergänzenden Betreuungszeiten	
...	Aufbau verbindlicher Kooperationsstrukturen der lokalen Akteure von Bildung, Betreuung und Erziehung im Rahmen kommunaler Bildungslandschaften	
	...	

Kooperationspartner im Handlungsfeld Betreuungs- und Bildungsinfrastrukturangebote nach Maß

Mit welchen Akteuren bestehen – getrennt nach Zielbereichen – aktuell Kooperationen? Welche Kooperationen sollen angestrebt werden?

	Verlässliche 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	Betreuungsangebote für Pflegebedürftige	Flexible Öffnungszeiten	Bemerkungen
Ansprechpartner (Lotse) in der Region/Kommune, der Familien und Betriebe über vorhandene Angebote informiert				
Eltern/Familien/Pflegende				
Freie Träger/Wohlfahrtsverbände/Kirchen				
Kindertagesstätten/Horte				
Tagespflegepersonen				
Schulen, Schulträger, Schulkollegien				
Eltern- und Schülervertretungen				
Jugendamt und Jugendhilfeausschuss				
Sozialamt und Sozialausschuss				
Landesverwaltungsamt, Schulverwaltungsamt				
Bündnis für Familie/Familienbüro				
Familienzentren/Mehrgenerationenhäuser				
Wirtschaftsförderungsamt und Wirtschaftsförderungsausschuss				
Betriebe, Mitarbeit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Handwerkskammer				
Jobcenter				
Vereine, Freizeiteinrichtungen				
Bürgerschaftlich Engagierte				
Hochschulen				
Kommunen, Länder, Gemeinden				
Weitere: _____				

IV.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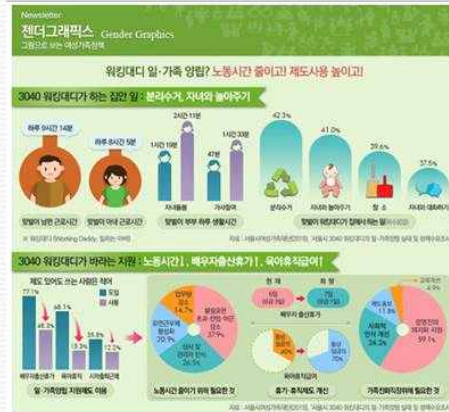
• 변화의 조짐들

1)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원, Day care center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부담 감소. (2011년 서울시 전 시설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이용 아동은 51,294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23.9%→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13만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47.6%까지 증가 예정. 안현미, 국공립+100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발간예정)
- 공공 노인요양시설 및 서울형 Day Care Center

2)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돌봄의 등장

3) 30-40 양육대리(daddy)들의 변화



IV.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32

	개인	가족	지역사회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간갈등 주 경험자의 시간주권 회복					
서로 다른 시간리듬의 동기화					
시간의 재분배					
시간 역량 강화					

[저녁 있는 삶] 바람에 선 뭇별아들

배우자 있는 1178만 가구 중
맞벌이가 43% 505만 가구
아근인 아내 대신 칼퇴근하면
“진급 관심없나” “애나 봐라” 비아냥
“진정엄마 안도와주면 사표 풀판”
장시간 노동체제 한계 다다라



www.rastel.com

Persistence of Time, 1931 - Dalí

‘저녁 없는 삶’ 470만 명...장시간 노동에 찌든 나라



<https://www.facebook.com/Grimed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